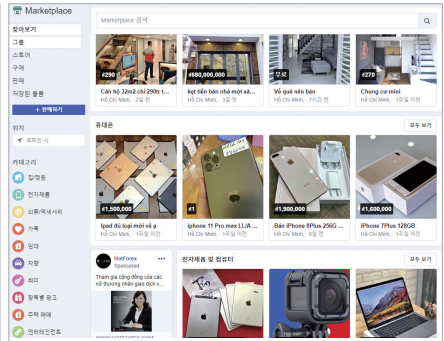




베트남은 음식·식품 O2O 플랫폼 전성시대



▲ SNS 개인 페이지에 판매 중인 상품



▲ 페이스북 앱 내 마켓 플레이스 카테고리

베트남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의 발전

베트남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2000년도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이다. 초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온라인에 상품을 업로드하여 홍보하는 O4O(Online for Offline)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SNS의 발달에 따라 사업자가 SNS 개인 페이지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올해 초 베트남에도 '마켓플레이스' 카테고리를 오픈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누구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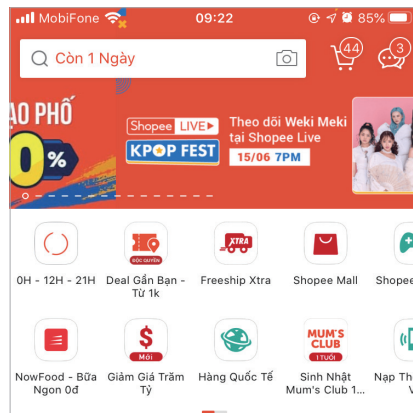
또한 앱을 이용한 음식·식품 배달 서비스인 O2O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 보편화 되었다. 과거에도 앱 혹은 웹을 이용한 O2O 플랫폼이 존재하였으나 입점한 가게가 한정적이며 회원가입 등의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보편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동남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그랩(Grab)사가 '19년 Uber를 인수하며 만든 그랩푸드(Grab food)를 통해 O2O 플랫폼 이용이 많이 증가하였다. 현재는 그랩푸드를 비롯하여 Now Food, Baemin 등 O2O 플랫폼이 현지에서 각광받고 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채널을 융합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출처 :

- 1 <https://m.blog.naver.com/2035icck/220658696344>
- 2 <https://www.sharkmarket.vn/>
- 3 <https://www.instagram.com/sharkmarketofficial/>
- 4 <http://www.marketsaigon.com/>
- 5 <https://www.instagram.com/marketsaigon/>



▲ 쇼피 모바일 앱 내의 나우푸드 서비스



출처 : Shopee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식품 O2O 플랫폼 소개

그랩푸드(Grabfood) - 음식 배달 플랫폼



출처: Grab

영업 시작일 2019년 10월
장점/특징 등록 기사수가 타 O2O 업체에 비해 많음에 따라 배송시간이 짧음
보유 카테고리 식사료(밥류, 음료류, 면류, 패스트푸드 등)
기타 베트남 1위 음식 배달 플랫폼

- 현재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배달 O2O 플랫폼인 그랩푸드는 배송이 빠르다는 평이 많으며 입점 상점이 다양해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음으로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 정보분석기업 Kantar, 2019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 거주자가 54%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그랩푸드라고 밝혔다.

나우푸드(Now Food) - 음식 배달 플랫폼



출처: NowFood

영업 시작일 2015년
장점/특징 베트남 식당 리뷰 및 추천 서비스 기업인 Foody에서 만든 음식 배달 플랫폼
보유 카테고리 식사료, 신선·가공식품, 주류 등
기타 가장 오래된 음식 배달 앱 중 하나

- 나우푸드는 가장 오래된 음식 배달 앱 중 하나로, '15년 딜리버리나우(Deliverynow)라는 이름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 주류, 공산품, 꽃 등의 주문 및 구매를 할 수 있으며 배달 서비스 외에 세탁,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 나우푸드는 베트남 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Shopee)사와 합작하여 쇼핑물 웹 내에 'NowFood'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샤크마켓(Shark Market) - 식품 배달 플랫폼



출처: Shark Market

영업 시작일 2019년
장점/특징 새벽 배송 가능, 일어 제공
보유 카테고리 신선·가공식품, 생활잡화, 전자제품 등
기타 식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음

- 샤크마켓은 '1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새벽 배송 서비스를 베트남에 처음 도입함으로써 아침을 챙겨

먹는 현지 소비자들의 식습관 및 핵가족화·도시화에 따른 간편식 선호, 비대면 구매 증가와 같은 현지 소비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현재는 베트남 주요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지역에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베트남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삼성과의 협업으로 웹·모바일 앱 내 '삼성'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모바일, 가전제품을 판매 중이다.

마켓사이공 - 식품 배달 플랫폼



출처: 마켓사이공

영업 시작일 2020년 5월
장점/특징 새벽 배송 가능, 현재 한인 대상으로 운영 중
보유 카테고리 과일·채소류, 수산물, 냉동·냉장 식품 등
기타 7월 앱 출시 예정

- 마켓사이공은 '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한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을 바로 받아볼 수 있음에 따라 간편화된 구매방법 및 더 신선해진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 현재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7월 공식 앱 출시 예정이다.



▲ 샤크마켓에서 판매 중인 삼성 제품

출처: 샤크마켓 공식 SNS 계정

Key Point

베트남 식품 산업 분야는 매년 전체 GDP의 1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해 현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간편성 및 고품질을 추구하는 베트남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관련 산업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 외식 소비패턴에 대비하여 적합한 O2O 플랫폼 입점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